

바닷가 마을에 번진 들불

박은정

참 이상했다. 일 년도 넘게 해온 물질이지만 오늘따라 미주는 바다 앞에서 가슴이 턱 막혀왔다. 물질이란 게 원래 그랬다. 바다 깊이 들어갈 때마다 사방이 껌껌해지면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저승으로 가는 것만 같았다.

“침병! 침병!”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친구 덕령이도 숨을 한껏 들이마신 뒤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평생 물질한 우리 할망도 나도, 이곳 종달리 일등 해녀야. 무서운 게 없어. 엄마 배 속에 있을 때부터 난 엄마와 함께 숨 참기를 연습한걸.’

미주는 누워계신 할머니 모습을 떠올렸다. 엄마가 바다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미주는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런 할머니가 요즘 물질만 나갔다 오면 기운 없어 하더니 며칠째 끄끙 앓고 있다. 순간 콧잔등이 시큰해지면서 힘이 솟아났다.

미주는 숨을 꼭 참고 물속으로 들어갔다. 스스로 온몸을 던져 저승으로 들어가는 순간이다.

“침병!”

미주는 전력을 다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고, 기어이 눈에 담았던 전복 너댓 개를 따고선 물 밖으로 올라왔다. 물에 둥둥 떠 있던 테왁에 가슴을 얹고 막혔던 거친 숨을 탁 토해냈다.

“호오이 호오이~”

미주는 잠수 실력이 뛰어나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땀다. 제법 망사리가 묵직해졌다. 하지만 산소통을 지고 들어가 어린 해산물까지 싹쓸이해가는 일본 잠수사들이 나타난 후 해녀들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해산물 양이 전보다 확 줄었다. 물 밖으로 걸어 나오니 차가운 물이 팔다리 사이로 줄줄 흘렀다.

“휘잉 횡.”

바닷바람이 불자 매서운 추위가 느껴졌다. 바다 한쪽 돌담으로 둥글게 에워싸 바람을 막고 있는 불턱에 방금 물질을 끝낸 해녀들이 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었다. 일찌감치 물질을 끝낸 덕령이도 파란 입술을 한 채 앉아있었다. 아늑한 기분에 좀 더 쉬고 싶었지만, 집에 혼자 있는 할머니 생각이 났

다.

“덕령아, 빨리 해녀 조합에 가서 전복 팔자.”

하지만 덕령이는 어쩐지 시큰둥했다.

“난 가고 싶지 않아. 요새 일본 상인들이 해산물값을 잘 안쳐줘서 솔직히 김빠진다!”

“안된다. 난 울 할망 몸이 불덩이라서 약 사야 해. 그러지 말고 우리 장터에서 맛있는 오메기떡도 사 먹자. 나 진짜 배고파.”

그 말에 덕령이가 배시시 웃으며 일어났다. 둘은 종달리 바닷가를 따라 끝없이 쌓아진 검고 울퉁불퉁한 돌담 위를 갱충 뛰며 갔다. 작은 꽃게들이 구멍을 파고 바쁘게 움직였다. 미주와 덕령이도 전에는 이 길로 수없이 다녔었다. 일본인 선생이 오기 전까지 함께 학교 다니던 길이다.

어느새 해녀 조합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해녀무리 속에 덕령이 엄마가 보였다. 덕령이가 반가운 목소리로 제 엄마를 불렀다.

“엄마!”

덕령이 엄마는 일본 상인들과 흥정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미주와 덕령이도 그 곁으로 슬그머니 가서 섰다. 덕령이 엄마 곁에 서 있으면 어쩐지 값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갑자기 덕령이 엄마가 소리를 짹 질렀다.

“날도둑이 따로 없네. 어떻게 이런 혈값에! 이러면 난 못 팔지.”

덕령이 엄마가 억센 팔로 쏟아놓았던 전복들을 다시 망사리에 집어넣고 있었다. 그러자 일본 상인이 덕령이 엄마의 전복을 뒤엎고 으지직 발로 밟으며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미주는 놀라서 몸이 얼어붙었다. 사람들도 다들 놀라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숨 막히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헉. 엄마...”

덕령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때 흥정을 구경하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흔들며 혼잣말했다.

“전복값을 많이 주든 작게 주든 그래도 받아야지. 안 그러면 배를 곶을 텐데. 나라 잃은 백성이니 뭘 힘이 있나. 쫓쫓.”

미주는 며칠 전 할머니가 유난히 전복을 많이 따서 기뻐하며 해녀 조합으로 가던 일이 생각났다. 그런데 그날 어찌 된 일인지 허탈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힘없이 방문을 열며 ‘꿈’ 소리만 내던 모습이 떠올랐다.

미주는 늘 이상했다. 할머니는 일등 해녀로 남들보다 더 많이 전복을 따는

데 살림살이는 늘 팍팍했다.

미주는 목이 타는 것 같았다. 뺏어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뜨거운 불덩이가 목 안에서 솟구쳐오르는 것 같았다.

“그 발 당장 치워!”

모두의 시선이 미주에게로 향했다. 깡말랐지만 제주 바람과 별에 그을려 제법 당차 보이는 미주가 불타는 눈으로 일본 상인을 찌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네 나라로 돌아가. 울 할망이 병난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 이 전복은 우리 할망이랑 제주 해녀들이 죽어가며 구해왔던 거란 말이야!”

먹은 것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미주는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때는 뱃일하러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아빠를 생각하며 바다를 원망하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바다가 고맙다며, 제주 해녀가 얼마나 강한지를 말해주었다. 그건 엄마가 없어도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 상인이 화가 솟구쳐 눈이 번득였다.

“너 누구냐, 썩그만 계집애가. 자 모두 똑똑히 보라고!”

일본 상인이 미주 가까이 다가가 때리려고 손을 쳐들었다. 그러자 해녀들이 해산물이 담겨있던 망사리를 던져두고 모여들었다. 깨진 전복과 어린 미주의 울분을 보니 다른 해녀들도 겁날 게 없었다. 해녀들의 대장인 상군 해녀들도 일본 상인의 앞으로 다가오며 소리쳤다.

“그 애에게 손대지 마!”

해녀들이 화가 나 몰려들자 일본 상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동안 여자라고 깔봤는데 해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였다.

“두고 보자.”

일본 상인은 겁먹은 개처럼 꼬리를 바짝 내리고는 허겁지겁 돈과 전복 그리고 저울을 챙겨 그 자리를 떠났다. 해녀들이 따온 전복과 우뭇가사리를 가짜 눈금으로 재어 혈값으로 사들인 그 저울이었다.

미주는 갑자기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몸이 한쪽으로 기우뚱해졌다.

“미주야, 네가 따온 전복은 어떡하든 제값 받아 줄 테니 내게 맡기고 얼른 집으로 가렴.”

미주는 덕령이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오는 동안 입을 꼭 다물었다. 하지만 짝조름한 눈물이 입술 사이로 들어왔다.

‘꼬르륵~’

갑자기 배고픔이 밀려왔다.

“덕령아. 울 할망이 바다에서 땀나게 움직이면 굶는 일은 없을 거라 했는데. 왜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야 할까.”

“미주야. 그래도 너 아까 진짜 용감했어. 정말 멋졌다.”

덕령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주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며칠 뒤 해녀들이 다 함께 모여 일본에 저항 시위를 할 거겠어. 이거 비밀이겠어.”

“정말?”

미주 얼굴이 환해졌다.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었다.

“덕령아. 그럼 우리도 힘을 합치자. 그날 우리도 애들을 모아 특별한 일을 벌이자.”

미주는 할머니의 자랑거리였던 만큼 머리도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다. 며칠 동안 덕령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짰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오늘이야.”

가혹하게 수탈해가는 일본 정부에 해녀들이 모여 저항 시위를 하기로 한 날!

그날 해녀들은 세화 장터에서 단체로 모여 일본 간부 타쿠치에게 항의하였다.

“약속을 어기고 해녀들을 궁핍하게 만드는 타쿠치는 제주 땅에서 물러나라!”

해녀들은 목청 터지도록 외쳤다. 장터에서 시위를 끝내고 나면 다랑쉬 오름으로 오를 예정이라는 것을 미주와 덕령이는 알고있었다.

그 사이 미주와 덕령이는 친구들을 이끌고 다랑쉬 오름으로 올랐다. 오름으로 향하느라 모퉁이를 돌자 장터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다. 흰옷 저고리를 검은 해녀복 위에 입은 조선 해녀들이 전복을 딸 때 쓰는 도구인 빗창과 호미를 들고 떼를 지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 해녀들은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딸이 아닌 거대한 하나의 움직임이었다.

“미주야, 정말 신기하다. 하얀 파도가 막 부서지는 성난 바다 같다.”

종달리 마을의 해녀들뿐 아니라 하도리, 세화리, 연평리 등 인근 마을 해녀들이 합류했다. 물줄기들이 모여 큰 바다가 되어가고 있었다. 높은 곳에서 한눈에 보니 소름이 돋았다.

해녀들의 행진은 장터를 지나 이제는 다랑쉬 오름 근처를 향하고 있었다.

미주와 덕령이는 친구들을 데리고 다랑쉬 오름 꼭대기에 가 있었다. 제주의 거센 바람이 미주의 머리칼을 마구 흩뜨려 놓았다. 미주는 평소 할머니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키 큰 삼나무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 제주 바람의 신들이 해녀를 항상 지켜주고 있단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말어.’

“애들아. 이제 해녀들이 이곳으로 모두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 만세를 부르는 거야.”

미주는 발도 닿지 않은 깊은 물 속에 잠수한 순간을 떠올렸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순간. 지금도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했다.

미주는 덕령이에게 신호를 보내느라 눈을 찡긋했다. 덕령이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주와 덕령이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십 명의 아이가 장터 쪽을 내려다보며 고함을 질렀다.

“하도리, 종달리, 세화리. 조선 해녀 만세!”

덕령이도 미주를 따라 소리쳤다.

“조선 해녀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메아리쳐 수없이 반복되는 아이들의 외침 따라 해녀들의 흰 무리가 오름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본 경관들도 뒤에서 하던 공격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해녀들도 만세를 외치며 다랑쉬 오름으로 힘차게 걸어오고 있었다. 삼나무에 햇살이 부서져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반짝임은 사라지지 않고 다시 바다로 퍼져나갔다.